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의 腹藏典籍 研究*

A Study on the Votive Printed Books Stored in the Wooden Seated Statue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Wonhyoam of Beomeosa

윤 상 기 (Yun, Sang-Ki)**

◁ 목 차 ▷

- | | |
|-------------------------------|---------------|
| 1. 서 언 | 4.2 『禪門拈頌集』 |
| 2. 범어사와 원효암의 연혁 및
목조관음보살좌상 | 4.3 『六經合部』 |
| 2.1 범어사와 원효암의 연혁 | 4.4 『地藏菩薩本願經』 |
| 2.2 목조관음보살좌상 | 5. 복장전적의 성격 |
| 3. 복장 기록물의 수습현황 | 6. 결 어 |
| 4. 복장전적에 대한 서지적 검토 | <참고문헌> |
| 4.1 『妙法蓮華經』 | [書影] |

< 초 록 >

이 연구는 부산 금정구에 소재하는 범어사 원효암의 무량수각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수습한 복장유물들 중 복장전적에 대한 서지적 특징과 문헌적 성격을 고찰한 것이다. 복장전적은 『妙法蓮華經』 7종, 『禪門拈頌集』 1종, 『六經合部』 1종, 『地藏菩薩本願經』 1종으로 총 10종이다. 판각을 기준으로 고려시대 판각본이 1종, 조선전기 판각본이 6종, 조선후기 판각본이 3종이다. 그리고 10종 모두 이미 판각사실이 알려진 것들이다. 불상은 1674년에 경상도 함양군의 영은사에서 조성한 것인데, 이들 전적들은 모두 불상 조성 때 복장 봉안된 것이며 분석 결과 불상 조성 배경과는 특별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要語: 범어사, 원효암, 영은사, 복장전적, 『妙法蓮華經』, 『禪門拈頌集』, 『六經合部』, 『地藏菩薩本願經』

* 이 연구는 2015년 12월 10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에서 개최된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정리한 것임.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kyoon@deu.ac.kr)

접수일: 2016년 2월 24일 최초심사일: 2016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contemplated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 and the literary character of the votive books stored in the wooden seated statue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in the Muryangsugak of Wonhyoam of Beomeosa located in Geumjeong-gu, Busan Metropolitan City. There were 10 editions buddhist books include 7 editions of *Lotus-sutra*, 1 edition of *Seonmunyeomsong-jip*, 1 edition of *Yukgyeonghapbu* and 1 edition of *Ksitigarbha-sutra*. And in engraving on wood block times, 1 edition in the Goryeo Dynasty, 6 edition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3 edi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ll of them are already known editions. The statue had been enshrined in the Yeungeunsa located in Hamyang-gun, Gyeongsang-do in 1674. Also these books had been dedicated that time.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no particular correlation between these books and the enshrinement background of the statue.

Key words: Beomeosa, Wonhyoam, Yeungeunsa, votive books found in statue, *Lotus-sutra*, *Seonmunyeomsong-jip*, *Yukgyeonghapbu*, *Ksitigarbha-sutra*

1. 서 언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는 범어사 원효암의 무량수각에는 목조관음보살좌상 1구가 봉안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 때 의상조사가 창건한 범어사는 華嚴十刹 중 하나로 불리다가 1913년에는 禪刹大本山으로 확정된 사찰로서 통도사, 해인사와 함께 경남지방의 3대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범어사의 산내암자인 원효암은 통일신라시대 때 원효대사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은 2008년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9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아 왔었는데, 2015년 개금을 위해 복장공을 열면서 候鈴筒을 비롯하여 다수의 복장유물들을 수습하게 되었다. 특히 發願文을 수습하게 됨으로써 2008년 지방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에서는 정확하게 밝힐 수 없었던 造像 내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에 대해 학술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 몇몇 연구자들이 분담 연구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수습된 복장유물 중 불교전적만을 담당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불상의 조성처와 봉안처, 불상의 조성과 이운 등에 대해 간단히 다룬 뒤, 수습된 복장유물 중 불교전적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그 판본과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2. 범어사와 원효암의 연혁 및 목조관음보살좌상

2.1 범어사와 원효암의 연혁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는 양산의 통도사, 합천의 해인사와 함께 경남지방의 3대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 한국 불교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

통일신라시대 때 화엄종의 十刹 가운데 하나로 불렸던 범어사가 언제 창건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몇몇 관련 기록들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신라 문무왕 18년(678)에 의상조사가 창건하고 흥덕왕 때 크게 개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²⁾

창건 이후 조선 전기까지의 변천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관련 기록이 현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임진왜란에 의해 범어사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동래성의 함락과 함께 범어사는 왜의 직접적인 방화와 약탈의 대상이 되었었다. 임진왜란 이후 10여년을 폐허로 있다가 선조 35년(1602)에 觀禪師가 중건하였으나 곧이어 화재로 다시 소실되었다.³⁾

광해군 5년(1613)에 이르러 玄鑑, 妙全, 戒環, 裕戒, 熙洽, 法仁, 天元, 德均 등의 스님들이 법당과 요사채, 불상과 十王像 그리고 필요한 모든 집기들을 갖추어 중창하였다. 그리고 兩亂 이후 중앙정부가 국방의 요충지인 각 산성을 중심으로 軍幕寺刹을 설치하여 僧軍을 배치할 때 이에 해당되었다. 이 때 범어사는 피폐된 현장을 복구하면서 이를 위한 신앙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주로 17세기에서 19세기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범어사의 신앙활동은 水陸齋와 공덕과 영험을 위한 염불정토신앙 등이 중심이었다. 특히 관음신앙과 다라니신앙이 유행하였다.⁴⁾

19세기말 이후에 修禪結社라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범어사와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결사를 주도한 鏡虛 惺牛(1849~1912)의 영향으로 광무 3년(1899)에 당시 주지 吳惺月(1865~1943)이 금강암에 선원을 창설하고 연이어 부속 암자에 선원을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융희 4년(1910)에 한국불교의 禪宗首寺刹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1911년 1월에는 명실상부하게 禪宗首刹이라는 명의로

1) 채상식, “범어사의 역사와 가람 배치,” 『천년고찰 梵魚寺』 ([부산] : 梵魚寺 성보박물관; 부산박물관, 2015), 208.

2) ① 채상식, “범어사의 역사와 가람 배치,” 209.

② ‘소개 및 유래,’ 범어사, <<http://www.beomeo.kr/idx/idx01.php>> [2015. 11. 10. 검색].

3) 채상식(2015), 210.

4) 채상식(2015), 210-211.

전국 사찰에 공문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13년에는 다시 禪刹大本山으로 확정되었으며, 아울러 많은 참선 學人을 배출하였다. 선사상을 강조한 범어사의 사상적 경향은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발포한 사찰령에 반대하는 臨濟宗 운동과 이후 항일 민족불교의 정신적 기반으로 계승되었다.⁵⁾

범어사의 남서쪽에 있는 원효봉을 오르는 길목에 있는 원효암은 범어사의 산내 암자로서 통일신라시대 때 원효대사가 彌勒庵과 함께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의 사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범어사의 산내 다른 암자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이후에 중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06년 6월에 선원이 개설된 이후부터는 참선 수행의 도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⁶⁾

2.2 목조관음보살좌상

원효암의 무량수각에 봉안되어 있는 보살상이다. 발원문에 따르면, 主上·王妃·世子の 長壽, 나라와 백성의 安樂, 今世의 무병장수와 소원성취, 극락왕생 등의 發願을⁷⁾ 담고, 正覺의 주도 아래⁸⁾ 현종 15년(1674) 5월에 경상도 함양군 西嶺 白雲山의 靈隱寺에서 조성하였는데, 원래 阿彌陀如來를 본존으로 좌우에 觀音菩薩과 大勢至菩薩이 挾侍하는 阿彌陀三尊像으로 함께 조성된 것이다.⁹⁾ 제작에는 首畫員 性照를 비롯하여 閑云, 自圭, 學淸, 性修, 雪梅, 思遠 등 7명의

5) 채상식(2015), 211.

6) 나철희, “범어사 원효암,”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5705> [2015. 11. 15. 검색].

7)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點眼發願文.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國界恒安民安樂 願我今世無病災 身心安樂壽命長 願我心中種種願 悉皆成就心歡喜 當證佛果度衆生 見聞隨喜皆同衆 惟願無限佛世尊 我此發願能成就”

8)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點眼發願文.

“各各結願 隨喜同衆 皆成正覺”

9)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點眼發願文.

“康熙十三年甲寅(1674)五月日 慶尙道咸陽郡西嶺白雲山靈隱寺 佛像三尊同成 世尊點眼 安于極樂教主阿彌陀佛 觀世音菩薩 大勢至菩薩”

彫刻僧들이 함께 참여하였다.¹⁰⁾ 수화원 성조는 조각승 勝日의 제자로 승일이 首彫刻僧으로 조성한 거의 모든 불사에 참여한 승일파의 가장 중요한 조각승 중의 한 사람인데, 영은사에서 조성한 아미타삼존상은 그가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현존 유일한 작품이다.¹¹⁾ 발원문에는 朴以俊 兩主¹²⁾를 비롯하여 총 179명의 施主者名을 담은 施主秩과 앞서 든 畫員 외에 證明, 持殿, 冶匠, 供養主, 乾租, 來往, 別座 및 都大化士의 명단을 담은 緣化秩도 기록되어 있다.¹³⁾

三尊像은 그 후 흩어졌는데, 현재 보존불인 아미타여래상은 함양 白雲庵의 대웅전에 주불로 안치되어 있으며 2010년 3월 11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498호로 지정된 바 있고, 관음보살은 우여곡절 끝에 원효암에 안치되어 2008년 12월 16일에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96호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협시불인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은 소실된 것으로 전해져왔으나,¹⁴⁾ 2015년 9월 2일에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공을 열었을 때 발원문이 나와 조성내력이 밝혀짐으로써 그 중 하나가 전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불상이 원효암에 봉안된 내력에 대해서는 복장공을 열기 전에 범어사 방장 知有(1931~현존) 스님이 밝혔다. 이 불상은 일본으로 반출되어 한 일본인 불교 신자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의 꿈에 이 불상이 나타나서 원래 장소로 돌려주지 않으면 병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가 실제 병을 앓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그가 1960년대에 한국에 되돌려주기 위해 부산 세관에 전달했고, 세관에서는 부산의 대표 사찰인 범어사로 불상을 봉안하기를 희망하면서 범어사의 강원 강당에 안치되었다가 다시 원효암으로 이안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에도 누군가가 훔쳐가려고 하는 등의 곡절을 겪었다고 한다.¹⁵⁾

10)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點眼發願文.

11) 송은석, “조각승 勝日과 勝日派의 造像 활동,” 『韓國禪學』 第26號(2010. 8), 431 참조.

12) 兩主의 경우에도 1명으로 헤아렸다. (이하 동일)

13)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點眼發願文.

14) ‘함양 백운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60686&cid=46659&categoryId=46659>>

[2015. 11. 14. 검색].

15) ① 박부영, “부처님가피로 귀환한 원효암불상, 조성연대 제작자 등 규명,” 불교신문,

이 불상의 크기는 뒷부분 기준 전체 높이가 98.8cm, 턱에서 머리 중앙까지의 얼굴 높이가 18.5cm이다. 얼굴은 방형이며 코는 몽툰한 편이고 머리가 짧은 편이다. 보살상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은 겉에 입은 大衣, 안쪽에 입은 裙衣로 구분된다. 대의는 두 어깨를 모두 덮은 복식법을 한 통견식이며 양쪽 어깨 위의 앞쪽에는 대의의 옷깃이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가슴 앞쪽까지 높게 착용한 균의, 즉 치마는 가로선을 그으며 표현되어 있고 띠 매듭선도 함께 묘사되었다. 대의는 하체부분의 양 무릎에서 몇 줄의 가로선을 그으며 조각되어 있고 대의의 끝자락은 구불구불하게 물결모양처럼 처리되었다.¹⁶⁾

두 손과 寶冠은 본존 보살상의 몸체와는 따로 구성되어 본체와 결합시켰다. 보관은 高冠으로 역시 나무에 도금을 하였는데, 보관의 정면과 좌우측의 넓은 면에는 구름무늬 1매, 봉황 2매, 연꽃 1매가 부착되었으며 보관의 정수리 부분에는 화염보주 9매가 부착되었다. 이러한 문양들은 모두 보관에 뚫려진 작은 구멍에 걸구되었다. 이외에 보관의 저부에는 연꽃 10매, 나머지 공간에는 음각 연꽃무늬가 조각되었다. 보관의 좌·우측에는 관대가 각각 1매씩 화염보주, 술 등으로 드리워졌다. 두 손의 길이는 오른손 27.7cm, 왼손 29.5cm이며, 손목 부분에는 손과 보살상의 몸체를 서로 결합시킬 때 고정할 목적으로 뚫은 0.8cm(오른손), 1cm(왼손) 크기의 구멍이 있다.¹⁷⁾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구부렸으며, 왼손은 무릎에 둔 자세에 역시 엄지와 중지를 결하여 설법인의 수인을 하였다.¹⁸⁾

이 불상은 그동안 관음보살상으로 불려 왔었다. 그런데 이번 발원문의 수습으로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인 것은 밝혀졌지만 보관에 상징물이 전혀 없어 尊名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손의 위치에서는 대세지보살상일 가능성이 높지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008>> [2015. 11. 15. 검색].

② 정은우,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의 특징,”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조사 학술대회, 2015. 12. 1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 8.
16) 최춘욱·양은경,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사보고서,” 미간본 조사보고서(2008).
17) 최춘욱·양은경(2008).
18) 정은우(2015), 9.

만 같은 손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 관음보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⁹⁾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사용되었던 관음보살상으로 지칭하였다.

3. 복장 기록물의 수습현황

2014년 불상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재의 균열과 표면층의 훼손 등 다양한 손상 원인이 발견되어 정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보존처리 사업을 진행해왔다. 동년 9월 2일에 1차 자문회의 및 복장조사를 실시하면서²⁰⁾ 가로 15cm, 세로 14.7cm 크기의 장방형에 종이로 마감되어 있던 복장공을 열게 되었다. 이때 발원문, 후령통, 불교전적 9종 10책과 落張 5장, 다리니와 진언 400여장, 충진지 130여장, 기타 불상 파편 몇 점을 수습하였는데, 머리 부분에 들어있는 일부 전적 등은 꺼낼 수가 없어서 수습하지 못했다. 당시 수습된 발원문을 통해 이 불상의 조상 관련 사실들이 분명히 밝혀지게 되었다. 복장물 해체는 X-선 촬영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4. 복장전적에 대한 서지적 검토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수습한 복장전적은 총 12건으로 假綴된 상태의 전적 10책과 七星圖 및 變相圖 낙장 2장, 변상도 낙장 2장이다. 이를

19) ① 정은우(2015), 9.

② 이희정,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연구,”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조사 학술대회, 2015. 12. 1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 28.

20) 이수예,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과학조사와 보존처리 방안,”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조사 학술대회, 2015. 12. 1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 66.

종류별로 정리해보면 『妙法蓮華經』 7종, 『禪門拈頌集』 1종, 『六經合部』 1종, 『地藏菩薩本願經』 1종으로 총 10종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

서명	간행년	간행처	권책	비고
妙法蓮華經	1422	大慈菴	권4-7 4권 1책, 칠성도 및 변상도 2장	후인
	1448		변상도 2장	孝寧·安平大君版
	1472	中臺寺	권4-7 4권 1책	후인
	1527	廣興寺	권1 1권 1책	후인
	1572	鷲岩寺	권1 1권 1책	후인
	1604	能仁菴	권1, 2 2권 1책	
	1609	歸信寺	권1 1권 1책	후인
禪門拈頌集	1243		권23-26 4권 2책	재조대장경 보유판 후인
六經合部	1462	花岩寺	1책	후인
地藏菩薩本願經	1658	碧松庵	3권 1책	

4.1 『妙法蓮華經』

法華思想의 핵심 경인 『妙法蓮華經』은 6책과 낙장 5장의 상태로 수습되었는데, 종수로는 7종이다. 낙장 1장은 함께 수습된 책에서 떨어진 것이다.

1) 1422년 大慈菴版 (<서영 1>)

① 권4-7

세종 4년(1422)에 大慈山 大慈菴²¹⁾에서 간행하였는데, 태종의 4남인 誠寧大君(1405~1418)이 일찍 세상을 뜬 것과 태종의 妃 元敬王后(1365~1420)의 서거에 대한 명복을 빌고자 仁順府尹 成抑(1386~1448)이 그의 사촌인 성달생 형제에게 필사를 청하고 도인 定庵의 발원으로 간행한 성달생서본계의 原刊 목판본이다. 전체 7권 중 권4-7의 4권 1책 결본이다.

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었다.

板式은 권4를 기준으로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1.3×13.5cm이다. 界線은 없고 行字數는 10행 20자이다. 魚尾는 없다. 책의 크기는 26.6×16.0cm이다.

권4의 卷頭에는 2장으로 된 칠성도와 변상도가 있는데, 半張의 칠성도, 반장의 神將像[韋馱天] 및 1장의 靈山會上圖로 이루어져 있다. 신장상의 우측에는 ‘妙法蓮華經 變相’이라는 題名이 있다.

권수제와 권말제는 ‘妙法蓮華經’이고 관심제는 ‘法’이다. 각 권수의 제2행에는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라고 기록되어 있어 溫陵 開元蓮寺의 승려 戒環이 주해했음을 알 수 있다.

권4말에는 ‘天台判事行乎/ 檜巖寺住持珍山/ 大禪師仁哲/ …’ 등의 施主記가 있다. 行乎는 태종 연간 대자암에 있었던 天台 고승이다.²²⁾

卷尾에는 2건의 跋文, 2건의 발원문, 工役·시주질, 연화질 등이 있다. 발문은 1442년 2월에 春亭 卞季良(1369~1430)이 쓴 것과 같은 해 3월에 涵虛堂 己和(1376~1433)가 쓴 것이다. 이어서 道人 定庵의 發願 證明이 있다. 그 다음에는 書寫者인 攄制 成達生(1376~1444)과 判事 成概(?~1440)의 이름과 시주질이 나온다. 다음으로 원경왕태후와 성녕대군의 명복과 上王, 主上, 恭妃의 수명장수를 축원하는 발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大功德主와 同願施主로 나뉜 시주질과 化主의 명단이 마지막으로 나타난다.

墨痕으로 보아 後印本임을 알 수 있다. 원래 5針眼 선장본 형태로 장정되었으나, 복장 봉안을 위해 앞 면지는 그대로 둔 채 앞·뒤표지와 뒷면지가 제거되고 7개의 종이끈[紙繩]으로만 가철된 상태이다. 약간의 침습 흔적이 있지만 보존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② 칠성도와 변상도 2장

칠성도와 변상도 2장만 떼어 내어 복장 봉안하였던 것이다. 목흔으로 보아

22) ‘妙法蓮華經: 초록/해제’,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search/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dkvgwkey=1130609&colltype=DAN_OLD&place_code_info=104&place_name_info=...>
[2015. 10. 20. 검색].

後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목흔의 흔적이 위의 ①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원래 권1-3의 권두에 있던 것을 떼어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동일 판본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²³⁾ 국립중앙도서관,²⁴⁾ 부산 金井寺,²⁵⁾ 경주 기림사,²⁶⁾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²⁷⁾ 서귀포 善德寺,²⁸⁾ 양산 통도사,²⁹⁾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³⁰⁾ 金敏榮, 李亮載 등에서 완질 혹은 결본들을 소장하고 있다.

2) 1448년 孝寧·安平大君版 (<서영 2>)

세종 30년(1448)에 태종의 둘째 아들인 孝寧大君 補(1396~1486)와 세종의 셋째 아들인 安平大君 瑒(1418~1453)이 功德과 勸善을 위해 함께 발원하여 간행한 것으로, 태종 5년(1405) 安心寺版을 번각한 성달생서본계의 목판본이다. 전체 7권 중 변상도 2장만 남아 있다. 원래 5침안 선장본 형태로 장정되었으나 변상도만 따로 떼어 내어 복장 봉안한 것이다. 책의 크기는 28.6×17.4cm이다.

변상도는 반장의 신장상과 1장 반의 靈山會上圖로 이루어져 있다. 즉, 두 판을 이용하여 제1판에는 신장상과 영산회상도의 우측 1/3을, 제2판에는 영산회상도의 좌측 2/3를 새겨 찍었다. 제1판에는 판심을 넣어 신장상과 영산회상도를 구분했다. 판심의 구성은 黑口에 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으며 下魚尾 바로 위에는 ‘草龜刀’라고 새겨져 있어서 草龜가 변상도를 새긴 刻手임을 알 수 있다. 이들 圖像이 새겨진 畫面은 金剛杵와 法輪을 교대로 배치한 匡郭으로 둘러져 있는데, 이는 고려 寫經變相圖의 광곽 모습과 같다.³¹⁾

23) 7권 4책 완본, 후인본, 화산貴-71C-1-4 / 7권 2책 완본, 貴-71Z-1-2.

24) 권4-7 4권 1책 결본, 한貴古朝21-362.

25) 세종 23년(1441) 쇄, 권4-7 4권 1책 결본,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15호.

26) 권3-4 2권 1책 결본, 보물 제959호.

27) 권5-7 3권 1책, 귀중도서 DR 213.14 범96-21 v.2.

28) 권3-4 2권 1책 결본,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9-1호.

29) 세조 1년(1456) 쇄, 7권 7책 완본, 보물 제1196호.

30) 권1-3 3권 1책 결본, 귀 K3-214.

31) 박도화, “朝鮮朝 妙法蓮華經 版畫의 研究,” 『佛敎美術』 12(1994. 12), 193.

신장상의 우측에는 ‘妙法蓮華經 變相’이라는 제명이 있다. 신장상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武將이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을 하고 양팔 위에 가로로 금장저를 엮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위태천이다. 조선조 經版畫에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³²⁾ 크기는 半郭이 18.6×12.1cm이고, 광곽을 포함한 外郭은 20.8×13.4cm이다.

연산회상도의 구도는 三尊佛坐像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중앙에는 法床을 앞에 놓고 臺座에 앉아 설법하는 本尊佛과 그를 에워싼 8명의 제자와 帝釋·梵天, 그리고 법상 좌우에 廳聞菩薩衆 2위가 배치되어 있는데, 대좌 앞에는 구름 위로 湧出하는 寶塔이 작게 묘사되어 있다. 왼쪽에는 右脇侍菩薩을 중심으로 제자 1인, 청문보살중 6위, 2 天王, 八部衆 4위로 구성된 眷屬들이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에는 左脇侍菩薩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종류, 수, 위치 등이 본존불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좌우대칭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다.³³⁾ 크기는 도상 전체를 대상으로 內郭은 18.8×38.1cm이고, 광곽을 포함한 外郭은 20.8×40.0cm이다.

광곽 및 도상의 모습과 板刻術은 왕실발원판답게 매우 뛰어나 그린 듯이 섬세하고 정교하다.³⁴⁾

동일 판본은 김소현,³⁵⁾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³⁶⁾ (재)아단문고³⁷⁾ 등에서 결본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 전존 판본들은 모두 권4-7로서 권4의 권두에 변상도가 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판의 번각본 권1-3 1책에도 권1의 권두에 변상도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³⁸⁾ 원래 이 판본에도 권1과 권4의 권두 즉, 각 책의 머리에 변상도를 배치했을 것이다.

보존상태는 약간의 침습 및 좁이 쓴 흔적이 있다.

32) 박도화(1994), 191, 주)47 참조.

33) 박도화(1994), 193 참조.

34) 박도화(1994), 193.

35) 권4-7 4권 1책, 보물 제766-2호.

36) 권4-7 4권 1책.

37) 권4-7 4권 1책, 보물 제766-1호.

38) 박도화(1994), 193.

3) 1472년 中臺寺版 (<서영 3>)

성종 3년(1472)에 聖壽山 中臺寺³⁹⁾에서 간행하였는데, 세종 25년(1443)에 佛明山 花岩寺에서 개간한 것을 번각한 성달생서본계의 목판본이다. 전체 7권 중 권4-7의 4권 1책 결본이다.

판식은 권4를 기준으로 사주단변에 반곽의 크기는 19.9×13.5cm이다. 계선은 없고 행자수는 10행 20자이다. 어미는 없다. 책의 크기는 30.0×17.7cm이다.

권수제와 권말제는 ‘妙法蓮華經’이고 판심제는 ‘法’이다. 각 권수의 제2행에는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라고 기록되어 있어 온릉 개원련사의 승려 계환이 주해했음을 알 수 있다.

권5말에는 禪師 能如⁴⁰⁾를 비롯한 총 62명의 시주질이 있다.

권미(권7말)에는 “저는 여러 경전의 판을 새김으로서 시방세계에 공덕을 쌓고 死生六道의 모든 중생이 함께 서방정토로 돌아가고, 함께 아미타불을 뵈고, 함께 淨法을 듣고, 衆生들과 同化하기를 원합니다.”⁴¹⁾ 라는 발원문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成化八年壬辰(성종 3, 1472)四月日 全羅道鎭安縣聖壽山中臺寺 開刊’이라는 刊記가 나온다. 이 간기를 통해서 이 책은 1472년 4월에 전라도 진안현 성수산의 중대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嘉善大夫 羅城君 吳自緞[治](1426~?)를 비롯한 총 48명의 시주질이 있다.

목흔으로 보아 약간 후인본으로 보인다. 원래 包角이 있는 5침안 선장본 형태로 장정되었으나, 복장 봉안을 위해 앞·뒤 면지는 그대로 둔 채 표지만 제거되고 8개의 종이끈으로만 가철된 상태이다. 위의 포각은 남아 있고 아래 포각은 떨어져 나갔다. 약간의 침습 흔적이 있지만 보존상태는 좋은 편이다.

동일 판본은 구미 자비사와⁴²⁾ 구례 천은사 수도암⁴³⁾에서 결본들을 소장하고 있다.

39)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었다.

40) 신라 말 고려 초의 승려인 能如와는 다른 승려이다.

41) ‘願我以諸經刻板 功德十方世界 死生六道一切衆生 同歸淨土 同見彌陀 同聞淨法 同化衆生’

42) 권5-7 3권 1책 결본.

43) 권4-7 4권 1책 결본.

4) 1527년 廣興寺版 (<서영 4>)

중종 22년(1527)에 下柯山 廣興寺에서 간행하였는데, 성종 원년(1470) 정희왕 후 간행본을 번각한 대자본계의 목판본이다. 전체 7권 중 권1의 1권 1책 결본이다.

판식은 四周雙邊에 반곽의 크기는 22.4×15.8cm이다. 계선이 있으며, 행자수는 8행 13자에 註雙行이다. 大黑口에 上下內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33.4×21.6cm이다.

권두에 2장으로 된 변상도와 終南山 승려 道宣(596~667)이 지은 <妙法蓮華經弘傳序>가 있다. 변상도는 영산회상도로서 중앙에 降魔觸地印을 취한 석가모니가 그를 향해 청문하는 사리불에게 설법하는 모습이 새겨지고, 오른쪽에는 迦葉을 비롯한 5 제자와 4菩薩, 梵王과 2天王 그리고 4구의 神衆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위로 구름을 타고 飛來하는 十方諸佛의 모습이 작게 표현되어 있다. 왼쪽에는 오른쪽의 권속들과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고, 왼쪽 여백에는 구름과 몇 송이의 散花가 표현된 구도이다.

권수제와 권말제는 ‘妙法蓮華經’이고 판심제는 ‘法華經’이다. 권수제에 이어 제2행에는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역자가 구마라 집임을 알 수 있다.

목흔으로 보아 후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원래 5침안 선장본 형태로 장정되었으나 복장 봉안을 위해 앞·뒤 표지와 면지, 그리고 간기, 발원문, 시주질, 공역질 등이 기록된 마지막 1장은 제거되고 2개의 종이끈으로만 가철된 상태이다. 보존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동일 판본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⁴⁴⁾ 국립중앙도서관,⁴⁵⁾ 경주 기림사,⁴⁶⁾ 범어사 정보박물관,⁴⁷⁾ 五臺山 月精寺,⁴⁸⁾ 호국쌍용사,⁴⁹⁾ 金庠基⁵⁰⁾ 등이 결

44) 권1-2 2권 1책 결본. 고294.38-묘83-1-2.

45) 권1, 5-7 4권 2책 결본. 후인본. 古1743-122.

46) 권3-7 5권 2책 결본. 보물 제959-4-10.

47) 2권 1책 결본. 후인본.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41호.

48) 권1 1권 1책 결본.

49) 권1, 2, 5, 7 7권 8책 결본. 권1은 4책 복본, 권5는 2책으로 분책.

50) 권6 1권 1책 결본.

본들을 소장하고 있다.

5) 1572년 鷲岩寺版 (<서영 5>)

선조 5년(1572)에 전라도 순창 靈鷲山 취암사에서 天文의 주관으로 간행한 甲寅字本系의 목판본이다. 전체 7권 중 권1 1책만 있는 결본이다. 어미와 행자수 등 갑인자본의 기본적인 특징은 유지하고 있으나 글자체는 원간본과 비교했을 때 심하게 변형되어 있다.

판식은 사주단변에 반곽의 크기는 23.1×16.1cm이다. 계선이 있으며 행자수는 10행 18자이다. 어미는 上下下向有紋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35.0×21.6cm이다.

권두에는 2장으로 된 변상도, <妙法蓮華經弘傳序> 및 靖康 2년(1127) 3월 중순에 송의 승려 及南이 지은 <妙法蓮華經要解序>가 있다.

변상도는 영산회상도로서 앞의 4) 1527년 廣興寺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구도이다. 변상도는 2매의 판에 새겼는데, 제1판의 광곽 바깥 우측 중앙에는 ‘大施主敬玄’이라는 시주자 표시가 있어서 敬玄이 시주하여 새긴 것임을 알 수 있고, 제2판에는 광곽 바깥 우측 상단에 ‘裴貴年 芍茱’이라는 시주자명이 있어서 배귀년과 작미가 시주하여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권수제와 권말제는 ‘妙法蓮華經’이고 판심제는 ‘妙法’이다. 권수의 제2행에는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라고 기록되어 있어 계환이 주해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墨書한 口訣이 있다. 권1말에는 간행참여자의 명단이 있는데, 시주질은 天奇 比丘를 비롯한 4명의 대시주와 101명의 일반 시주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수는 能月, 熙云, 敬仁[印], 克⁵¹林 4인이다. 화주는 天文이고, 공양주는 戒還이다.

목흔으로 보아 약간 후인본으로 보인다. 원래 5침안 선장본 형태로 장정되었으나 복장 봉안을 위해 앞·뒤 표지와 면지가 제거되고 3개의 종이끈으로만 가철된 상태이다. 보존상태는 약간의 침습 흔적이 있지만 대체로 좋은 편이다.

동일 판본은 金敏榮⁵²이 소장하고 있는 권2, 3 2권만 확인되었다. 전래가 매우

51) 권1 장1의 상어미에는 ‘훤’으로 새겨져 있다.

드문 稀覯本이다.

6) 1604년 能仁菴版 (<서영 6>)

선조 37년(1604)에 지리산 雙磎寺의 말사인 能仁菴⁵³⁾에서 開刊하여 쌍계사로 옮겨 보관한 경판으로⁵⁴⁾ 인출하였는데, 세종 27년(1445)에 兜率山 安心寺에서 개간한 것을 번각한 성달생서본계의 목판본이다. 전체 7권 중 권1, 2의 2권 1책 결본이다.

판식은 사주단변에 반곽의 크기는 20.4×13.7cm이다. 계선은 없고 행자수는 10행 20자이다. 어미는 없다. 책의 크기는 29.9×18.1cm이다.

권두에는 2장으로 된 칠성도와 변상도, <妙法蓮華經弘傳序> 및 <妙法蓮華經要解序>가 있다.

칠성도와 변상도는 반장의 칠성도, 반장의 신장상[위태천] 및 1장의 영산회상도로 이루어져 있다. 영산회상도는 祇園精舍에서의 설법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화면 중심에 香爐, 花盤 등이 올려진 法床을 앞에 놓고 설법하는 본존이 자리하고, 그 좌우에는 4보살, 10대제자, 사천왕, 팔부중의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본존의 법상 아래에는 10대제자 중 解空第一 須菩提가 청문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뒤로 在家衆과 比丘衆이 자리하여 설법을 듣는 모습이다. 원래 이 도상은 『妙法蓮華經』의 도상이 아니라 『金剛般若波羅密經』의 도상을 『妙法蓮華經』 변상으로 차용한 것이다.⁵⁵⁾ 신장상의 우측에는 ‘妙法蓮華經 變相’이라는 제명이 있다. 칠성도와 변상도는 2매의 판에 새겼으며 각 판의 광곽 바깥 우측 하단에는 시주자명이 나타난다. 칠성도와 신장상을 새긴 제1판의 시주자명은 ‘通政大夫梁彥重兩主’로 되어 있고, 제2판은 ‘通政大夫梁彥張兩位’로 되어 있다. 양언중과 양언장은 형제로 추측되며, 양언장 부부를 ‘兩位’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양언장

52) 권2-3 결본.

5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에 있었다.

54) 권말에 ‘萬曆三十二年甲辰(선조 37, 1604)夏 能仁菴開刊 移鎮于雙溪寺’라는 간기가 있어서 1604년 여름에 능인암에서 판각하고 쌍계사로 옮겨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55) 박도화(1994), 198.

이 양언중의 형이거나, 양언중이 죽은 양언장 부부 명의로 대신 시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처럼 광곽 바깥에 새겨진 시주자명들은 이후 권두 부분과 본문 부분 전체에 걸쳐 많이 나타난다.

권수제와 권말제는 ‘妙法蓮華經’이고 판심제는 ‘法’이다. 각 권수의 제2행에는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라고 기록되어 있어 계환이 주해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5침안 선장본 형태로 장정되었으나 복장 봉안을 위해 앞·뒤 표지와 면지가 제거되고 5개의 종이끈으로만 가철된 상태이다. 보존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동일 판본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⁵⁶⁾ 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⁵⁷⁾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도서관,⁵⁸⁾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⁵⁹⁾ 金東旭,⁶⁰⁾ 金敏榮 등에서 완질 혹은 결본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 판본을 찍은 경관은 지금도 쌍계사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⁶¹⁾

7) 1609년 歸信寺版 (<서영 7>)

광해군 원년(1609)에 전라도 전주 毋岳山 歸信寺에서 간행하였는데, 성종 원년(1470)의 정희왕후 간행본을 변각한 대자본계의 목판본이다. 권1 1책 완본이다. 원래 내용상으로는 7권을 이루어야 완전하나 간행 시 권1만을 간행했기 때문에 간행상으로는 완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자본계의 『妙法蓮華經』은 선조 7년(1574) 德周寺版부터는 권1만을 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간행의 목적이 강원교재나 독송용에서 공덕용으로 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⁶²⁾ 따라서 간기도 권1말에 나타난다.

56) 1책 결본, (이) 294.3354 계ㅎ -4.

57) 3권 1책 결본, 고 213.54 계733마.

58) 7권 4책 완질, D 223.54 계96쌍.

59) ① 권5-7 3권 1책 결본, 古南 223.54 범화경口7, 선조 41년(1608) 琵琶山 湧泉寺 후인본.

② 권5-7 3권 1책 결본, 古南 223.54 범화경口7-2.

60) 권1-3 3권 결본.

61)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경남지역의 목판자료(1)』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8), 409-411.

62) 鄭王根,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2012. 8), 132, 136, 141.

판식은 사주단변에 반곽의 크기는 22.8×15.9cm이다. 계선이 있으며 행자수는 8행 13자에 小字雙行이다. 대흑구에 어미는 上下內向有紋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33.4×22.4cm이다.

권두에는 2장으로 된 변상도, <妙法蓮華經弘傳序>, <妙法蓮華經要解序> 및 戒環解가 있다.

변상도는 영산회상도로서 앞의 4) 1527년 廣興寺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구도이다. 변상도는 2매의 판에 새겼는데, 제1판의 광곽 안쪽 우측 하단에는 ‘大施主吳石千兩主’라는 시주자 표시가 있고, 제2판에는 광곽 바깥 우측 하단에 ‘李於叱之兩主’, 광곽 안쪽 좌측 하단에는 ‘李仁孫兩主’라는 시주자명이 각각 새겨져 있다. 그 중 ‘李仁孫兩主’는 다음 장인 <妙法蓮華經弘傳序>의 광곽 바깥 하단에도 새겨져 있다.

권수제와 권말제는 ‘妙法蓮華經’이고 판심제는 ‘法’이다. 권수제에 이어 제2행에는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역자가 구마라집임을 알 수 있다. 흑구, 어미 혹은 광곽 바깥 하단 등에 간행참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경우가 많다. 예로 <妙法蓮華經要解序> 장1과 장2의 상흑구, 장3 하흑구, 그리고 戒環解 장1-3의 상흑구 등에는 ‘信玄’이라는 이름이 음각되어 있는데, 信玄은 이 책 간행 시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으나 인조 5년(1627)에 鎭安 盤龍寺에서 『妙法蓮華經』을 간행할 때는 校正으로 참여한 인물이다.⁶³⁾ 또한 본문 장1에는 상흑구에 ‘崔峯’, 상어미에는 ‘全州’, 장2에는 상흑구에 ‘崔’가 각각 음각되어 있고, 장3에는 上版口에 ‘全州崔峯’이라고 양각되어 있어서 전주의 최봉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원래 5침안 선장본 형태로 장정되었으나 복장 봉안을 위해 앞·뒤표지와 먼지가 제거되고 3개의 종이끈으로만 가철된 상태이다. 그 후 시주질과 간기가 있는 마지막 장을 포함하여 권말 3장이 찢겨져 나갔는데, 그 중 제일 마지막 1장은 함께 수습되었다. 따로 수습된 제일 마지막 장에는 권말의 권말제 앞에 李連壽를 비롯한 11명의 시주질이 있고, 권말제 다음에는 ‘萬曆三十七年己酉(광해군 원,

63) 鄭王根(2012), 236.

1609)二月日/ 全羅道全州歸信寺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1609년 2월에 귀신사에서 개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의 장들과는 달리 장차표시도 없고 판식도 다르지만 이는 새 간기를 새기기 위하여 번각하지 않고 따로 새기면서 생긴 현상으로 생각된다.

후인의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며, 보존상태는 약간의 침습 흔적이 있고 독송으로 인해 서구쪽 하단 부분이 다소 닳아 있다.

동일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⁶⁴⁾ 영광 불갑사, 담양 용흥사,⁶⁵⁾ 중앙승가대,⁶⁶⁾ 충남대학교 도서관⁶⁷⁾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4.2 『禪門拈頌集』

고려 후기의 禪僧인 眞覺國師 慧諶(1178~1234)이 고려 고종 13년(1226)에 修禪社⁶⁸⁾에 있으면서 엮은 『禪門拈頌集』은 1종 2책이 수습되었다(<서영 8>).

『禪門拈頌集』은 고려 고종 13년(1226)에 초간되었으나 현재 전해지는 것이 없고 경판도 몽고와의 전쟁 중에 소실되었다고 전한다. 그 후 고려 고종 30년(1243)에서 35년(1248)까지 대장도감 남해분사에서 재조대장경을 각판할 때, 혜심이 입적한 뒤 수선사 3세 國師가 된 혜심의 제자 淸眞國師 夢如(?~1252)가 1,125칙에 새로이 347칙을 더하여 1,472칙을 담아 1243년에 다시 각판하여 보유판에 수록하였다고 전해지나, 실제로 이 再刻된 고칙은 1,463칙에 그친다.⁶⁹⁾

64) 인조 6년(1628) 9월 후인본, 위창古1743-38.

65) 인조 15년(1637) 2월 후인본.

66) 41127.

67) 고서 子·釋家類 242.

68) 지금의 松廣寺.

69) ① ‘선문염송집표주서 번역문’, <<http://blog.naver.com/pyungsimsa/220312928885>> [2015. 10. 10. 검색].

②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大慧宗杲의 저작,” 『역사와 경계』 92(2014. 9), 38-39, 주2).

③ 李占淑, “慧諶의 『禪門拈頌』 研究,” (박사학위논문, 東國大學校 大學院, 2010), 27-28.

수습된 『禪門拈頌集』은 이 재조대장경 보유관을 후인한 목판본이다. 전체 30권 중 권23-26의 4권 2책 결본이다. 판각은 斷俗寺 주지 萬宗이 아버지 崔怡의 延壽와 干戈息靜 그리고 朝野和平 등을 기원하기 위해 간행코자 계획하고 대장도감 남해분사를 운영하는 鄭晁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졌다.⁷⁰⁾ 그 刻板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인사에 간직되어 있다.

판식은 권23을 기준으로 上下單邊 左右雙邊에 반곽의 크기는 17.2×12.5cm이다. 계선은 없으며, 행자수는 12행 21자에 주쌍행이다. 어미는 上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25.8×16.5cm이다.

권수제와 권말제는 ‘禪門拈頌集’이고 판심제는 ‘拈頌’이다. 판심 하단 장차표시 아래에 각수명이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본문에는 목서 구결이 있다.

후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재조대장경의 후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행해졌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복장 봉안된 1674년 이전의 인출은 고려 충숙왕 5년(1318), 고려 충숙왕 복위 7년(1338), 고려 우왕 7년(1381), 태조 2년(1393), 정종 원년(1399), 태종 13년(1413), 세종 21년(1439), 세조 3년(1457), 연산군 6년(1500) 등이 있다.⁷¹⁾ 이 판본이 이 중 어느 때에 후인된 것인지 혹은 별도로 후인된 것인지도 관련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전래되고 있는 다른 인본들과의 판본 비교를 통해 인출의 선후 관계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전래되고 있는 동일 판본들은 모두 다양한 시기에 찍어낸 후인본들인데,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⁷²⁾ 국립중앙도서관,⁷³⁾ 규장각 한국학연구원,⁷⁴⁾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⁷⁵⁾ 범어사 정보박물관,⁷⁶⁾ 용화사 목담유물관 자료실,⁷⁷⁾ 원광대학

70) 권말의 <萬宗記>와 신승운, ‘禪門拈頌集: 초록/해제’,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search/search.jsp?pageNavTotal ...](http://www.nl.go.kr/nl/search/search.jsp?pageNavTotal...)> [2010. 10. 31. 검색]을 참조.

71) 박은경,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해인사 사간관 인경변상판화의 조사현황과 특징,” 『石堂論叢』 57집(2013. 11), 77.

72) 1책 결본, 화산 貴 156 1 / 1책 결본, 만송 C3 A54B 9 / 1책 결본, 만송 C3 A54D 6.

73) 권12 1권 1책 결본, 승계貴1787-29.

74) 3권 1책 결본, 294.315-H997sa.

교 중앙도서관⁷⁸⁾ 등에서 결본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1963년 가야산 해인사 인출본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⁷⁹⁾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⁸⁰⁾ 국립중앙도서관,⁸¹⁾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⁸²⁾ 동아대학교 도서관,⁸³⁾ 부산대학교 도서관,⁸⁴⁾ 송광사 정보박물관,⁸⁵⁾ 중앙승가대⁸⁶⁾ 등에서 원본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 중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된 범어사 정보박물관 소장본은 현상 조사 시 14세기 중엽에 인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던 것인데, 대조 결과 이 책보다 늦게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뒤 표지만 제거되고 네 개의 종이끈으로만 가철된 상태로 복장 봉안되었다. 침습의 흔적이 좀 있긴 하지만 보존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다.

4.3 『六經合部』

『金剛般若波羅密經』을 비롯하여 세인들이 많이 崇信하고 讀誦하며 成佛을 발원하는 6經들을 합하여 한 책으로 엮은 『六經合部』는 1종 1책이 수습되었다. (<서영 9>)

세조 8년(1462)에 불명산 화암사에서 간행하였는데, 세종 6년(1424)에 도솔산 안심사에서 開板한 것을 번각한 목판본이다. 1책 완본이다.

판식은 사주단변에 반곽의 크기는 19.7×12.8cm이다. 계선은 없고 행자수는 8행

75) 3책 결본, 2188- 해59사3 / 21권 7책 결본, 2188- 해59사전 / 3권 1책 결본, D2188-해59사3-v.3.

76) 권22-24 3권 1책 결본,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82호.

77) 권17-18 2권 1책 결본, 宗-14.

78) 1책 결본, AN228.7-ㄱ948엽ㄱ.

79) 30권 30책 완본, 古 294.3 해58사.

80) 30권 10책 완본, 육당 C3 A38A / 30권 30책 완본, 대학원C3-A54-1-30.

81) 30권 10책 완본, BA1797-5.

82) 30권 9책 완본, 213- 불73ㄱ해.

83) 30권 9책 완본, (3):13-84.

84) 30권 30책 완본, 3-13-21.

85) 30권 10책 완본, E-4-42-1-30.

86) 30권 10책 완본, 41122.

17자에 주쌍행이다. 판심은 있으나 어미는 없다. 책의 크기는 25.4×16.0cm이다.

권두에는 2장으로 된 변상도가 있다. 변상도는 기원정사에서의 설법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도이다. 2매의 판에 새겼으며 제1판 우측에는 ‘金剛般若波羅密經 變相’이라는 제명이 있다. 제1판의 광곽 안쪽 우측 하단에는 ‘性悟刀’라는 각수 사항이, 좌측 하단에는 ‘施主 司直李保珪 具氏’라는 시주자명과 ‘化主 性會 禪師 覺珠’라는 化主名이 새겨져 있어서 이 변상도는 司直 李保珪와 綾城⁸⁷⁾ 具氏의 시주로 性悟가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 6경을 배치하는 방식은 전래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책의 경우에는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은 제외되었고 나머지 5경이 다음과 같은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맨 앞에 배치된 『金剛般若波羅密經』은 ‘金剛經啓請’, ‘淨口業眞言’, ‘請八金剛’, ‘請四菩薩’, ‘發願文’, ‘云何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권수제가 나온다. 이어 제2행에는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역자가 구마라집임을 알 수 있다. 본문 32분이 끝난 다음에는 권말제에 이어 ‘般若無盡藏眞言’, ‘金剛心眞言’, ‘補闕眞言’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경전의 판을 새김으로서 시방세계에 공덕을 쌓고 死生六道의 모든 중생이 함께 서방정토로 돌아가고, 함께 아미타불을 뵈고, 함께 淨法을 듣고, 衆生들과 同化하기를 원합니다.”⁸⁸⁾ 라는 발원문과 ‘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이라는 간기가 나온다. 이 간기를 통해서 이 책은 고산의 화암사에서 개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행을 주도한 西院君 韓繼美(1421~1471)를 비롯한 韓繼禧(1423~1482), 韓繼善(1426~1487), 韓繼純⁸⁹⁾(1431~1486) 형제들의 이름이 간행참여자의 서두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 다음 면에는 宝正을 비롯한 94명의 시주자명을 담은 시주질이 나온다.

다음은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다. 권수제에 이어

87) 본관을 가리킨다. 『金剛般若波羅密經』 말에 나오는 시주질에는 ‘綾城具氏’로 본관까지 표기되어 있다.

88) ‘願我以諸經刻板 功德十方世界 死生六道一切衆生 同歸淨土 同見弥陀 同聞淨法 同化衆生’

89) 책에는 ‘韓繼淳’으로 새겨져 있는데, ‘純’을 ‘淳’으로 잘못 새긴 것으로 판단된다.

‘闕賓國三藏般若奉 詔譯’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역자가 般若임을 알 수 있다.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으로 줄인 권말제 다음에는 ‘速疾滿普賢陀羅尼’, ‘普賢菩薩滅罪呪’, ‘普賢菩薩擁護受持眞言’이 마지막으로 나온다.

다음은 『大佛頂首楞嚴神呪』이다. 본문이 끝난 뒤 眞言牌가 그려져 있고 권말제가 나온다.

다음은 『佛說阿彌陀經』이다. 권수제 다음에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역자가 구마라집임을 알 수 있다. 권말제 다음에는 ‘無量壽佛說往生淨土呪’, ‘決定往生淨土眞言’, ‘上品上生眞言’, ‘阿彌陀佛心呪’, ‘阿彌陀佛心中心呪’, ‘無量壽如來心呪’, ‘無量壽如來根本印’이 차례대로 나온다. 마지막에는 시주질이 있는데 모두 38명이다.

마지막으로 『觀世音菩薩禮文』이 배치되었다. 권말제 다음에는 세조의 장수와 세종이 佛智를 證得하기를 바라는 발원과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覺岸에 超登하기를 바라고 이 『六經合部』를 受持讀誦하는 자와 見聞隨喜하는 자들 모두 菩提를 증득하기를 바란다는 발원문이 있다.⁹⁰⁾ 발원문 다음에는 발문을 쓴 성달생의 관직과 성명이 있다. 그리고 성달생의 관직과 성명을 적은 마지막 줄의 우측 여백에는 ‘天順壬午(세조 7, 1462)七月日重刻’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1462년 7월에 重刻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좌우 여백에는 공역질, 시주질, 연화질이 있어서 鍊板은 胡衍과 性敏이 담당하였고, 板手는 性悟와 敏崑, 공양주는 玉明, 大施主는 金光大, 화주는 覺珠와 性會였음을 알 수 있다.

관심제는 각 경마다 달라서 『金剛般若波羅密經』은 ‘金’,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은 ‘行’, 『大佛頂首楞嚴神呪』는 ‘頂’, 『佛說阿彌陀經』은 ‘阿’, 『觀世音菩薩禮文』은 ‘口’이다.

묵흔으로 보아 약간 후인본으로 보인다. 원래 5침안 선장본 형태로 장정되었으나 복장 봉안을 위해 앞·뒤 표지와 면지가 제거되고 5개의 종이끈으로만 가칠된 상태이다. 보존상태는 침습의 흔적이 다소 있고, 서구쪽 하단 부분이 남아 일부는

90) ‘主上殿下壽萬歲 世宗大王證佛智 次願 先考先妣兩仙駕超登覺岸 又諸受持讀誦者見聞隨喜者 咸證菩提云’

배접을 한 곳도 있어서 다소 좋지 않은 편이다.

동일 판본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⁹¹⁾ 양산 光天寺,⁹²⁾ 국립중앙도서관,⁹³⁾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⁹⁴⁾ 부산 금정사⁹⁵⁾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4.4 『地藏菩薩本願經』

지장신앙의 기본경전인 『地藏菩薩本願經』은 1종 1책이 수습되었다(<서영 10>). 효종 9년(1658)에 지리산 碧松庵에서 개관하여 君子寺로 옮겨 보관한 경판으로 인출한 것인데, 세조 8년(1462)에 刊經都監에서 개간한 것을 번각한 한문본 목판본이다. 상중하 3권 1책 완본이다.

판식은 사주단변에 반곽의 크기는 22.3×20.6cm이다. 유계에 행자수는 10행 17자이다. 어미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34.9×24.0cm이다.

권두에는 ‘至心歸命禮’, ‘開經偈’, ‘開法藏眞言’이 있다. 권수제는 장을 달리하지 않고 바로 다음 행에 이어 기록되어 있다. 권수제와 권말제는 ‘地藏菩薩本願經’이고 판심제는 ‘地’의 변과 나머지 부분을 상하로 배치한 모양인 ‘𡇗’이다. 예외적인 판심제도 있어 장19의 판심제는 ‘지장’이라는 한글명으로 되어 있다. 권수제 다음 행에는 ‘三藏法師 法燈譯’이라는 역자표시가 있어서 法燈이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각 권의 권말제 다음에는 모두 釋帙을 두었다. 下魚尾에는 한글로 음각된 각수명이 자주 보이고, 광곽 바깥에는 시주자명이 새겨진 경우도 있다.

권미에는 발원문, 後跋, 간행참여자들의 명단, 간기 등이 있다. 발원문은 태종을 비롯한 왕가의 사람들과 돌아가신 부모님, 그 외 인물들의 極樂往生과 福壽無疆을 빌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아 金九德(?~1428)의 딸인 태종 때의 明嬪(?~1479)이 왕실의 여러 사람과 더불어 발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발문은 底本

91) 2책, 대학원귀-417A-1-2.

9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5호.

93) BA0236-18.

94) D223.5-육14.

95)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15호.

에서의 기록이며 실제 저본이 되는 刊經都監版의 5행 17자 중 5행씩 2면을 합하여 선장본으로 번각, 간행, 제본할 때 후발을 다시 붙인 것이다.⁹⁶⁾

후발은 현세에서는 부모가 무병장수하기를 빌고 祖考와 法界의 모든 존재들이 고뇌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며, 이 『地藏菩薩本願經』을 간행하여 널리 유통시켜서 여러 檀越과 함께 깨달음의 길에 이르고자하는 발원을 담고 있다.

간행은 禪敎都摠攝 國一都大師 覺性(1575~1660)이 주관하였으며, 교정과 후발은 學淨과 玄贊이, 幹善은 淸辯이 맡았다.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朴允南과 張蘭梅를 포함한 5인이, 寺衆에서는 學性和 應峯을 포함한 45인이 참여하였다. 鍊板은 靈眼이, 刻字는 信圭, 熙侃, 法堅, 日行, 印輝, 淨坦이 맡았으며, 淨坦은 引勸도 겸하였다.

간기는 ‘下元甲戌(효종 9, 1658)季夏日 慶尙道咸陽郡智異山碧松庵開板 移鎮於君子寺’로 표기되어 있어서 1658년에 경상도 함양군 지리산 벽송암에서 경판을 새기고 군자사로 옮겨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래 5침안 선장본 형태로 장정되었으나 복장 봉안을 위해 앞·뒤 표지와 면지가 제거되고 두 개의 종이끈으로만 가철된 상태이다. 보존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동일 판본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5. 복장전적의 성격

범어사 원효암의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수습한 복장전적은 『妙法蓮華經』만 7종이고, 나머지 『禪門拈頌集』, 『六經合部』, 『地藏菩薩本願經』은 모두 1종씩으로 총 10종인데 모두 목판본이다.

시기별로는 13세기 고려시대 간본이 1종, 15세기와 16세기 조선전기 간본이 각각 4종과 2종, 17세기 조선후기 간본이 3종이다. 그리고 1448년간과 1604년간 『妙法蓮華經』과 『地藏菩薩本願經』을 제외하고는 모두 후인본으로 추정된다.

96) 南權熙, “地藏菩薩本願經의 版本 研究,” 『古印刷文化』 第13輯(2006), 69.

그러나 1674년에 불상을 조성하면서 봉안한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 늦어도 그 이전에 인출된 것들이다.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영은사에서 조성되었다. 영은사의 창건이나 연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정읍 內藏寺의 연혁과 얽혀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다만 구전에 의해 19세기말 폐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靈隱寺址에 있던 것을 함양 백운암에 옮겨놓은 7기의 부도를⁹⁷⁾ 통해 영은사의 규모와 고승대덕이 주석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⁹⁸⁾ 따라서 영은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내장사와의 관계와 남아있는 부도의 인물들로 보아 조계종파에 속하는 사찰이었음만 짐작할 수 있다.

조계종은 禪派들이 하나로 뭉친 宗派이고 宗憲에 따르면 『金剛般若波羅密經』과 『傳燈法語』가 소의경전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수습된 복장전적 중에 선종 승려들의 필독서인 『禪門拈頌集』 1종이 있기는 하나 관중수로나 책수로나 가장 많은 것은 오히려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妙法蓮華經』이다. 이처럼 불상을 조성하고 복장한 영은사와 복장전적 사이에 성격상의 상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전적을 복장 봉안할 때 특별히 가려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6. 결 어

지금까지 부산 금정구에 소재하는 범어사 원효암의 무량수각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조성처와 봉안처, 불상의 조상과 이운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그 불상에서 수습한 복장전적들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674년 5월에 경상도 함양군 서령 백운산의 영은사에서 조성한 아미타삼존상 중의 하나로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원효암에 안치

97) 이 부도군은 2010년 9월 2일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03호로 지정되었다.

98) ‘함양 백운암 영은사지 부도군’,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2015. 11. 14. 검색].

된 것이다.

수습한 복장전적은 전적 10책과 칠성도 및 변상도 낙장 2장, 변상도 낙장 2장 등 총 12건으로, 『妙法蓮華經』 7종, 『禪門拈頌集』 1종, 『六經合部』 1종, 『地藏菩薩本願經』 1종의 총 10종이다.

『妙法蓮華經』은 1422년 대자암판 권4-7 1책과 칠성도와 변상도 낙장 2장, 1448년 효녕·안평대군판 변상도 낙장 2장, 1472년 중대사판 권4-7 1책, 1527년 광흥사판 권1 1책, 1572년 취암사판 권1 1책, 1604년 능인암판 권1, 2 1책, 1609년 귀신사판 권1 1책이다. 『禪門拈頌集』은 1243년 재조대장경 보유판 권23-26 2책이다. 『六經合部』는 1462년 화암사판 1책이다. 『地藏菩薩本願經』은 1658년 벽송암판 3권 1책이다.

시기별로는 13세기 고려시대 간본이 1종, 15세기와 16세기 조선전기 간본이 각각 4종과 2종, 17세기 조선후기 간본이 3종이다. 그리고 1448년간과 1604년간 『妙法蓮華經』과 『地藏菩薩本願經』을 제외하고는 모두 후인본으로 추정된다.

복장된 전적들과 조성처 등 불상 조성 배경 간에는 별다른 상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참고문헌>

成達生 書. 『六經合部』.

慧謹 編. 『禪門拈頌集』.

金有利. “『六經合部』의 板本 研究.” 석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2013.

南權熙. “地藏菩薩本願經의 版本 研究.” 『古印刷文化』 第13輯(2006). 53-112.

박도화. “朝鮮朝 妙法蓮華經 版畫의 研究.” 『佛教美術』 12(1994. 12). 177-232.

박은경.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해인사 사간판 인경변상판화의 조사현황과 특징.” 『石堂論叢』 57집(2013. 11). 71-107.

- 송은석. “조각승 勝日과 勝日派의 造像 활동.” 『韓國禪學』 第26號(2010. 8). 411-446.
- 宋日基. “靈光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 卷3의 刊年 問題.” 『書誌學研究』 第48輯(2011. 6). 83-130.
- 이수예.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과학조사와 보존처리 방안.”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조사 학술대회(2015. 12. 1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 65-78.
- 李占淑. “慧謙의 『禪門拈頌』 研究.” 박사학위논문. 東國大學校 大學院. 2010.
- 이희정.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연구.”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조사 학술대회(2015. 12. 1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 21-34.
- 鄭王根.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2012. 8.
- 정은우.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의 특징.”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조사 학술대회(2015. 12. 1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 8-20.
-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大慧宗杲의 저작.” 『역사와 경계』 제92호 (2014. 9). 37-71.
- 채상식. “범어사의 역사와 가람 배치.” 『천년고찰 梵魚寺』. [부산] : 梵魚寺 성보박물관 ; 부산박물관, 2015. 208-214.
- 최춘옥, 양은경.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사보고서.” 미간본 조사보고서. 2008.
-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경남지역의 목판자료(1)』.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8.
- 『부산의 문화재』, 개정판(5차). [부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2013.

NAVER 블로그. <<http://blog.naver.com>>.

NAVER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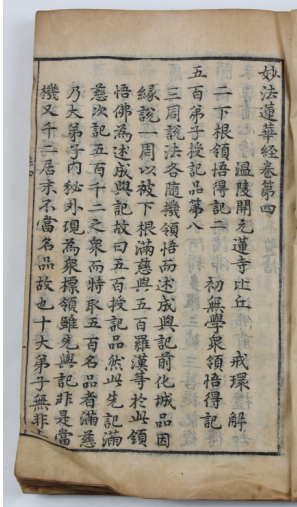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불교신문. <<http://www.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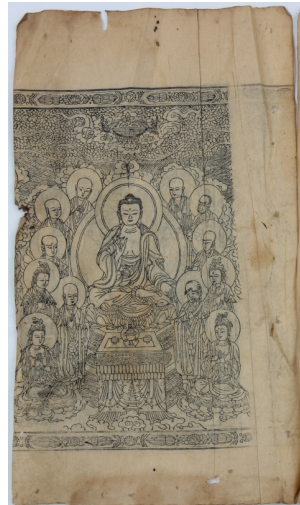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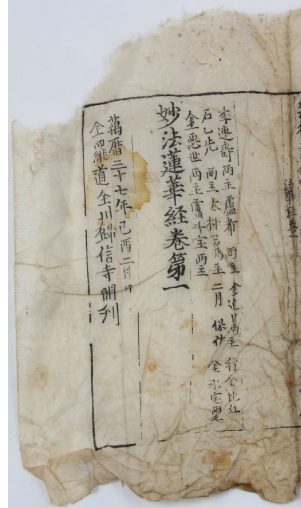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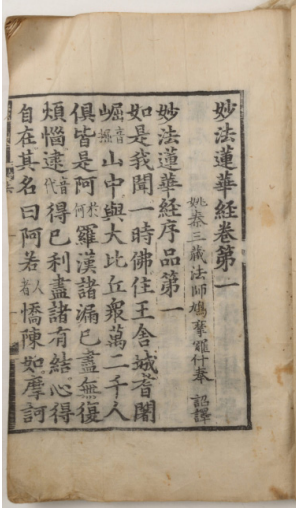
[書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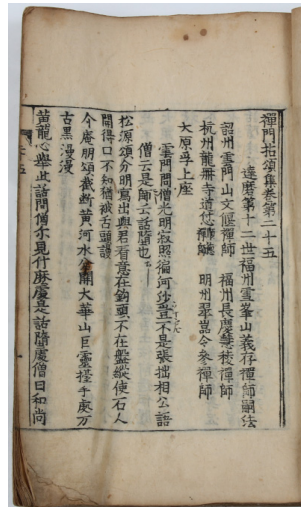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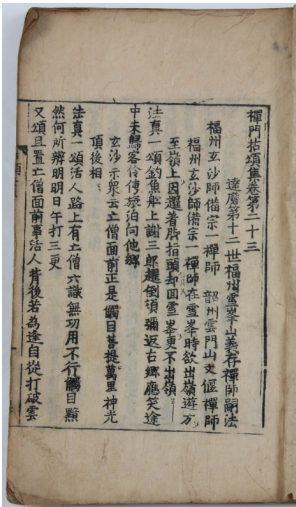
<서영 1> 『妙法蓮華經』: 1422년 대자암판 (좌:① 우: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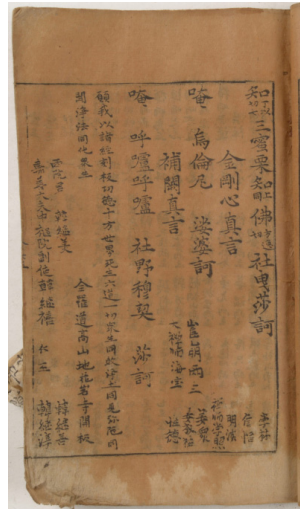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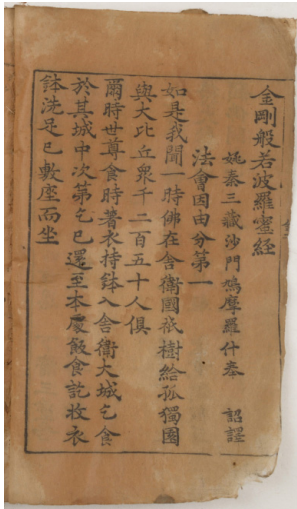
<서영 2> 『妙法蓮華經』: 1448년 효녕·안평대군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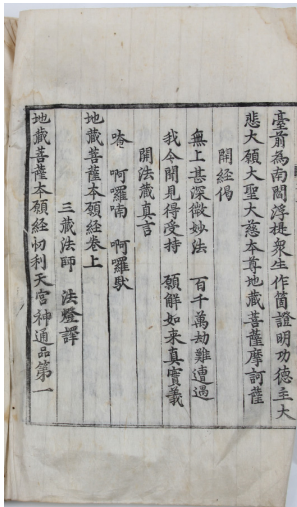
<서영 7> 『妙法蓮華經』: 1609년 귀신사판



<서영 8> 『禪門拈頌集』: 1243년 재조대장경 보유판



<서영 9> 『六經合部』: 1462년 화암사판



<서영 10> 『地藏菩薩本願經』: 1658년 벽송암판